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12.12 (통권378호)



경제이슈

유럽 재정위기 해결 난항

한은, 2012년 경제성장률 3.7% 전망

경영노트

디지털 혁명에 대비하라

사회 트렌드

우리나라 부패 주체 1위는 정치인

늘어나는 대한민국

저널 브리프

2012년 주거 트렌드

洗心錄

천하지성(天下至誠)

□ 유럽 재정위기 해결 난항

- 유럽연합 정상회의(8~9일)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며 합의안 도출이 난관에 직면
 - EU 개정안 합의 난관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재정규율 강화 등을 골자로 제시한 'EU 성장과 안정 협약 개정안'이 영국,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
 - 위기 해결을 위한 예산 부족 : 또한 독일 정부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연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럽 채권에 대한 추가 매입을 거부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합의안 도출이 실패할 경우, 유로존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급증할 전망

□ 한은, 2012년 경제성장률 3.7% 전망

-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내수의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증가율 감소로 3.7%를 기록할 전망
 - 소비 : 민간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2011년 2.5% 증가에서 2012년 3.2% 증가로 소폭 개선될 전망
 - 투자 :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2011년 4.5% 증가에서 2012년 4.2% 증가로 소폭 둔화,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개선되어 2011년 -5.3% 감소에서 2012년 2.8% 증가할 전망
 - 대외거래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율 감소로 흑자폭이 축소되어 2011년 272억 달러에서 2012년 13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
- 2012년에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및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 될 경우 성장 동력 약화, 청년 실업 문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됨

□ 디지털 혁명에 대비하라¹⁾

- SNS 등 디지털 혁명이 기업과 개인 간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킴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개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투자가 요구
 - IBM이 전세계 CM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경영 환경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
 - 또한 이 같은 복잡성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SNS의 확산과 데이터량의 급증, 디지털 디바이스의 다양화 등을 지목
- 디지털 혁명은 긴밀한 고객 관계 구축을 위한 역사상 최대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 선도 기업과 후발 주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
 - 인류의 문명 시기 이후 2003년까지의 정보량이 지금은 단 이틀 만에 생성될 정도로 현재는 대량 정보의 시대
 -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CMO들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과제를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업은 반도 안 되는 수준
- 하지만 기업들 대부분은 기업과 고객 관계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기존의 고객 분석 및 관리 방식, 아날로그 문화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기업과 고객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하여 >

	특 징
고객 분석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소비자 조사는 고객 집단의 분류에 따른 수치화된 정보 획득에는 용이하나 실제 고객의 목소리는 SNS 안의 대화가 더욱 정확 •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SNS를 개설하고도 이를 통한 자기 홍보에만 집중할 뿐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는 소극적
고객에게 보다 다가서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고객의 상품 평가 순서가 ‘주위 사람→전문가→판매자기업’ 순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외면 • 결국 기업은 고객의 인생에서 주위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요구 • 이를 위해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 라이프사이클의 분석, 기업 성격의 확립 및 유지를 통한 관계의 지속이 필요
조직의 디지털 IQ를 높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은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이는 아직 조직원 상당수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결국 디지털 혁명 이후에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기업만이 생존

1) 본 자료는 IBM의 ‘From Stretched to Strengthened’(2011. 11)’를 요약 정리함

□ 우리나라 부패 주체 1위는 정치인²⁾

-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국 사회의 부패 인식도 조사에서 정치인이 부패 유발 주체 1위로 나타남
 - 일반 국민의 65.4%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51.6%)보다 13.8% 포인트 늘어난 수치
 - 공식사회에 대해서도 56.7%가 부패하다고 인식, 작년(54.1%)보다 증가
- 특히 부패유발 주체로는 정치인(56.6%)과 고위공직자(23.3%)가 가장 많이 지목됐고, 부패 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음
 -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53.8%가 부정적으로 평가
 - 공무원 조사대상자의 70.6%도 정치인을 부패 유발 주체 1위로 꼽음

□ 늙어가는 대한민국³⁾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약 50년 뒤면 우리 국민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
 - 앞으로 3년 후면 40세 이상 중년 및 노년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됨
 - 더구나 이 같은 추세라면 약 50년 후에는 청장년과 어린이 등 40세 미만의 ‘젊은 피’가 우리 국민의 3분의 1로 쪼그라들게 됨
-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60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0세 이상 인구는 지난 1960년 10명 중 2명 꼴(19.3%)에서 점점 늘어나다 오는 2014년에는 10명 중 5명으로 40세 미만 인구와 같아짐
 - 2060년에는 40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 7명(68.4%)꼴로 증가
 - 40세 이상 인구는 이미 올해 전체 인구의 약 47%(2,353만여 명)를 차지하고 있고 2027년에는 60%를 넘어서 3,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2) “우리나라 부패 주체 1위는 정치인”, 문화일보, 2011.12.9.

3) “3년 뒤엔 중년의 나라, 20년 뒤엔 노년의 나라”, 서울경제, 2011.12.8.

□ 2012년 주거 트렌드4)

■ 2012년에는 다음의 주거 트렌드가 예상됨

- ① 여러 가족이 돌아가며 주택을 이용하는 ‘주택 타임셰어(Time Share)’
 - ‘주택 타임셰어’란 여러 가족이 집을 공동으로 매입·임대한 뒤 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임
 - 이는 1인 가구의 증가, 도심 소형주거공간 이용 활성화, 주택 소유 개념의 약화 등이 맞물려 생겨나는 현상
- ②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며 함께 사는 ‘신(新)캥거루족’의 증가
 - 경제적으로 독립은 했으나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 독립할 나이가 됐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엃혀’사는 ‘캥거루족’과는 다른 개념임
- ③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샐러드볼 타운(Salad Bowl:다문화주의)’의 확대
 -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마치 각종 야채를 버무린 샐러드처럼 한 지역에 다양한 민족·국민의 생활방식과 문화·종교 등이 반영된 주거공간이 늘어날 것
- ④ 저렴하게 간단히 조립하는 ‘매뉴팩처드 하우스(Manufactured House)’
 - 주택건축기법이 계량화·표준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하는 모듈러 주택이 발달하여 더 쉽고 빠른 건축이 가능해질 것
- ⑤ 주택관리를 돕는 ‘버틀러(Butler:집사) 서비스’의 확산
 - 독신, 맞벌이 등이 늘어나면서 형광등 교체, 청소 등 일상적인 가정일을 대행해주는 ‘집사’ 서비스도 확산될 것
- ⑥ 주택 소비의 양분화
 - 1인가구의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소형주택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고급주택·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도 두드러질 것
- ⑦ 첨단 안전주택의 인기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홍수 피해 방지 시설 등을 보유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4) ‘전월세금 상승… 내년 인기 끌 주거공간 7大 트렌드는?’(동아일보, 2011.12.8) 참조

□ 천하지성(天下至誠)

‘천하지성’은 『중용(中庸)⁵⁾』 제22장의 제목이며, 중용을 구성하는 33개 장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이다. ‘인간으로서 우주적인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천하지성)의 중요함을 설파하고 있으며, 천하지성을 다하는 사람은 2011년 12월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천하지성’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과 소질을 다 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천지와 더불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하지성’의 성(誠)이란 성실하다는 것이며, 소소한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극하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극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사물의 내면에 있는 바른 이치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밝아지고, 움직이며,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至誠의 道를 구현한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사변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며, 그러므로 지성은 하느님이나 신과 같다고 할 것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곧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는 앞의 주장과 연결되는 얘기이며, 성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실한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약 2천 5백 년 전에 저술된 ‘中庸’과 ‘至誠’에 관한 책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과연 성실했는지 반성하게 해준다. 벽에 못을 박을 때에도 성실하지 못하면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인간으로서 소소한 사물에 대해서도 지극 정성을 다한다면, 불확실성의 시대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천하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용기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떤 환경에서도 지키는 일이다.

- 플라톤 (BC 428~347) : 그리스 철학자

5)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쓴 책으로 論語, 孟子, 大學과 더불어 4書の 하나다. 도올 김용옥은 『중용, 인간의 맛』(2011)에서, 중용이란 ‘모든 상황에 대한 원용한 구심점’, ‘맛을 아는 심미적 경지’라고 풀이했다.